

미세먼지 없는 녹색도시 건설

진안군, 대기오염 주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접수

진안군은 아름다운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미세먼지 유발과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상반기 8000만원에 이어 추경예산 1억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관련 차량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신청을 받는다.

군은 지난해 71대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90대를 폐차하였지만 차량 소유주들의 호

응도가 높아 추경예산을 확보해 추가 지원키로 한 것.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환경부와 전라북도의 국도비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이며 해당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2년 이상 연속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도 없어야 하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한 미부착 차량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주는 이달 17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군에서는 접수된 차량을 대상으로 오래된 연식순으로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2017년도 12월말 기준 등록된 노후경유차 총 3,070대 중 1,500여대에 대해 민선 7기 중 지속적으로 조기폐차를 시행할 방침으로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호객행위·바가지 NO” 관광무주 지킨다

군, 휴가철 맞이 점검반 편성... 관광시설 안전·위생·요금 등 집중 점검·단속

무주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18곳과 농촌관광시설 116곳에 대한 안전 점검과 식품위생업소 281곳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행정담당 등 4개조로 점검반을 편성한 무주군은 지난 1일까지 관내 전통시장과 무주 IC 만남의 광장, 농공단지, 산지유통센터, 가공공장에 대한 불법광고물과 쓰레기, 안전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살폈다.

또 9일까지는 민박과 관광농원 등

농촌관광시설을 돌며 안전관리와 사고관리, 위생관리 사항 등에 대해 집중 점검·조치할 방침이다.

구천동관광단지과 무주덕유산리조트, 칠연계곡 등 여름철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피서지 주변 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들과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들이 함께 나서 31일까지 점검업소 종사자들의 개인 위생을 비롯한 청결상태, 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등을 점검한다. 호객행위를 비롯한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무주군 관계자는 “우리 군을 믿고 찾아주시는 관광객 여러분이 기분 좋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쉬다 가실 수 있도록 안전 및 위생, 요금 등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지역의 외안 뿐 아니라 내면도 세계적인 으뜸관광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기자

폭염·가뭄 대책마련 긴급회의

진안군, 피해 예방 총력 대응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난 3일 계속되는 폭염·가뭄으로 인한 군민들의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 군수는 군청 상황실에서 폭염·가뭄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 대응회의를 열고 관련 부서별 폭염·가뭄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민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모색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진안군은 지난달 20일 폭염 경보가 발효된 이후 불볕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심용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폭염대응 합동 T/F팀을 폭염대책본부로 격상하고, 22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폭염 취약계층 수시 방문 건강관리와 마을방송 등을 통해 폭염대처를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난 3일 계속되는 폭염·가뭄으로 인한 군민들의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위한 홍보·계도활동을 펼쳐 폭염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진안읍 시가지에 살수차 운영과 풀 부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작물 피해 상시 접수, 가축재해 보험 가입독려 등 폭염·가뭄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다.

‘덕유산 중턱에서 즐기는 노천탕’

부영그룹 무주 리조트 휴가철 물놀이장 운영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양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다. 산과 계곡 등 덕유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혀볼까.

맛을 수 있다. 온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더할나위없다.

▲이외에서 즐기는 물놀이 수영장
여의 물놀이 수영장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시설과 선텐 베드 등이 갖춰져 있어 물놀이와 함께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다.

▲덕유산 중턱에서 즐기는 세솔동 야외노천탕 & 풀덕유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무주덕유산리조트의 명소다. 운치 있는 야외 노천탕은 남녀노소 온가족이 함께 피로를 풀기에 적합한 장소다.

▲이열치열로 이겨내는 무더위, 고풍격 사우나 & 세인트 휴고폭격이 느껴지는 휴양 공간 세인트 휴 쥘쥘방&사우나·불가마방, 소금방, 맥반석방, 황토솜방, 건식 고온/저온 사우나, 습식 사우나, 수면실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다.

더위에 지친 심신의 피로를 말끔히 씻고, 삶의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웰빙 공간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ysort.com)를 찾아보거나 전화(063-322-9000)로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공모 선정

진안군은 산림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산촌거점권역 육성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군은 지난달 23일 공모사업 신청 설명회와 사업 대상지인 백운면 백암리 현장평가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심사 끝에 경북 울진·강원 평창·인제·충북 괴산 등 전국 4개 시군과 함께 당당히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

산촌거점권역은 산림자원의 조성·육성·벌채, 이용과 재조성의 선순환 구조에 맞춰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건축·음식재료·에너지 등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정주·일자리 공간 모델이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내년에 산림

청으로부터 컨설팅비 1억원을 지원받아 핵심 산림자원과 연계한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지역거버넌스 협의체와 함께 잠재자원 조사·분석, 산촌 특화발전 계획수립,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오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과 지역권 산림치유원과 연계해 친환경 산업과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선진화된 정주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 산촌지역 주민과 귀산촌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 다목적 공기계 공급 박차

장수군의 다목적 농기계 공급 사업이 농가의 농기계 구매 부담과 일손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

올해 총 사업비 6억을 지원, 다목적 농기계 총 285대를 공급했다. 이는 지난해 3억2,400만원(173대)보다 확대 지원한 것으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리기, 경운기, 동력살분무기 등 중소형 농기계 1,320대를 지원했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농민기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상당 부분 해결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군은 농업의 생산비 절감과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영농기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장수를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해 산서,반안,장계,천천입대농기계사업소(5개소)를 운영 중이며, 농용굴삭기, 퇴비살포기 등 80종 62대 농기계를 연중 임대하고 있다.

서정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우리 농촌의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증가 등 다양한 작목에 필수적인 농작업을 위해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사과 하계 정지전정 기술자 양성

무주군은 오는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사과 하계 정지전정 기술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2명의 신청자와 희망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은 전 영주농업기술센터 우병용 과수담당을 초빙해 진행하며 정지전정(가지치기) 이론과 실습을 주로 한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하현진 인력육성 담당은 “정지전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고 농가들의 경영비를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관내 사과생산 농가는 950여 농가(790ha규모)로 무풍과 안성 등 무주반딧불사과의 주산지로 알려진 과원들은 대부분 해발 400~80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무주반딧불사과는 농산물물류피아드대회 입상, 탐푸르트 품질대상, 지리적표시제등록 등을 통해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유기농법을 비롯한 무농약 등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고 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가들이 늘어나면서 안전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잡기 및 우승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버머티 지역 취득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